

아랍에미리트 (UA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7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I.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G D P	2,614억 달러 (2008년)
인구	4.5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54,531 달러 (2008년)
정치체제	7개 토후국 연방 절대군주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AE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 (달러당)	3.67 (달러 페그제)

- 아랍에미리트(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한 걸프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Abu Dhabi, Dubai, Ajman, Fujairah, Ras al-Khaimah, Sharjah 및 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임.
- UAE는 세계 6위의 원유 (매장량 978억 배럴) 및 세계 7위의 천연가스(매장량 227조 입방피트)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비석유산업의 성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해 11월말 두바이월드(DW)의 6개월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촉발된 두바이 사태는 현재까지 DW와 채권단간 채무재조정 관련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향후 발표될 채무재조정 범위 및 방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아부다비 정부의 두바이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두바이 사태가 UAE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의 원유 수입 대상국이자 중동지역 제 1위의 수출대상국임.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총 4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향후 양국간 원자력 관련 협력이 강화될 전망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8.7	6.1	5.1	-0.7	0.6
재정수지/GDP	28.5	21.5	20.5	0.4	9.8
소비자물가상승률	9.3	11.6	11.5	1.0	1.5

자료: IMF

□ 수년간 견실한 성장세 지속, 그러나 2009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 2006~08년 UAE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건설 및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석유산업의 고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매년 5%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 국제유가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0.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평균 원유가격 (WTI, 배럴당)

2007년 72달러, 2008년 100달러, 2009년 62달러, 2010년(전망) 75달러

** 연도별 원유생산량 (배럴/일)

2007년 2.5백만, 2008년 2.6백만, 2009년 2.4백만, 2010년(전망) 2.5백만

- 석유부문 GDP는 전년대비 6.3% 축소되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8%로 고성장해 온 비석유부문 GDP도 1% 성장하는데 그치는 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2010년에는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지속, 아부다비 정부의 개발프로젝트 실시*,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부문의 성장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1% 미만에 머물 전망임.

* 2010년 건설중인 프로젝트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4,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석유부문 GDP는 2.7% 성장하여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비석유부문 GDP 성장은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수년간 지속된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폭 크게 축소

- 2006~08년 UAE의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매년 GDP 대비 20% 이상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석유 및 비석유 부문 모두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200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은 14% 증가하여 2009년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0.4%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금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크게 둔화

-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디르함(Dirham)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민간 부문의 임금인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수입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1%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10년에는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 수입물가 상승 및 아부다비 정부의 대형 개발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년에도 소비자물가는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UAE 정부의 관광, 금융 등의 산업다각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35%,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및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전력수요 급증으로 공급능력 확충이 정부과제

- UAE는 건설붐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연평균 6%대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 10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력 공급능력 확대가 동국의 정책 우선순위임.
- 동국의 전력 수요는 2007년 전년대비 10% 증가한 13,224MW 수준에서 2010년 21,548MW, 2015년 32,814MW,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40,858MW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UAE 정부는 기존 복합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에서 벗어나 태양열,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고심하고 있음.

아부다비 정부의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중인 100MW 태양열 발전소 건립과 2009년 12월 우리나라가 수주한 1400MW급 원전 총 4기 건설 프로젝트 또한,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동국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계획에 따른 것임.

*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Masdar City Project)는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 폐기물제로의 친환경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총 사업규모가 220억 달러에 달함.

□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

- 동국은 외국인이 인구의 80%(특히, 두바이의 외국인 비중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민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이란 등의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UAE 정부는 자국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또한, 동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바이어 신용조사가 어려운 지역

- 동국은 법인세는 물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없고, 대부분의 개인 기업이 비공개 기업이므로 재무제표를 포함한 영업실적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바이어들의 재무 상태나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상존함.

* UAE는 재정수입 확대 및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2년 부가가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동국은 세계 6위의 석유 매장량(978억 배럴, 세계 점유율 7.8%, 2008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일산량 2.4백만 배럴로 계산시 향후 100년 이상에 걸쳐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음.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 규모가 막대하여 석유 산업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천연가스 또한 세계 7위의 매장량(227조 입방피트, 세계 점유율 3.5%, 2008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확인됨.

- ※ UAE 7개 토후국 중 국토면적의 86%,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UAE 원유 생산량의 90%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계무역기지

- 동국은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낮은 세금,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수입품의 40~70% 수준)을 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 물류거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석유관련 산업, 은행업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세 가지 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도 GCC* 공통관세인 5%로 낮은 수준임.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원유 매장량의 40%,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써 발전하고 있음.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추진중

- UAE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 분산을 위해 제조업, 금융 서비스, 관광 등 비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 과거 수년간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수관 매설, 주거시설 확대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건설업, 금융,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동국은 비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투자 문호를 개방하였음.

또한,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통제, 국내 판매 의무 등의 각종 규제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약 30여개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3년 43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42억 달러까지 확대 되었으며, 2008년에는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362	195	222	-62	181
경 상 수 지 / GDP	22.1	9.7	8.8	-2.7	7.3
상 품 수 지	566	470	635	258	472
수 출	1,446	1,791	2,398	1,630	1,823
수 입	881	1,321	1,763	1,372	1,351
외 환 보 유 액	280	779	309	299	395
총 외 채 잔 액	806	1,301	1,358	1,297	1,294
총 외 채 잔 액 / GDP	49.2	62.7	52.0	56.3	56.4
D S R	3.2	4.4	3.2	10.4	7.8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흑자규모 대폭 축소 및 경상수지 적자전환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와 중동 및 여타지역으로의 재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5년 409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 635억 달러로 50% 이상 증대되었음.
- UAE의 수출구조 (2009년 기준)
석유 (30.7%), 가스 (4.1%), 재수출(40.3%), 기타(24.8%)
- UAE의 주요 교역대상국 (2008년 기준)
 - 수출 : 일본 (25.3%), 한국 (9.0%), 태국 (5.8%), 인도 (4.7%)
 - 수입 : 중국 (13.4%), 인도 (9.8%), 미국 (9.2%), 독일 (6.8%), 일본 (6.4%)
- 경상수지도 2006~08년 기간동안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매년 19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여 왔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및 생산량 감축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258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경상수지는 -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 470억 달러(2007) → 635억 달러(2008) → 258억 달러(2009)
 - 소득수지 : 79억 달러(2007) → 31억 달러(2008) → 15억 달러(2009)
 - 서비스수지 : -260억 달러(2007) → -338억 달러(2008) → -233억 달러(2009)
 - 경상이전수지 : -93억 달러(2007) → -106억 달러(2008) → -101억 달러(2009)
- 금년에는 석유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181억 달러로 흑자 전환되어 GDP의 7%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 보유, 그러나 외채비중은 다소 과중

- UAE의 2009년 외환보유액은 약 300억 달러로 오일머니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으로 인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보임.
 - FDI : 128억 달러(2006) → 142억 달러(2007) → 137억 달러(2008)
- 총 외채규모는 그동안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150억 달러에 달하는 원금상환으로 총 외채규모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1,29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총 외채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GDP 감소로 2009년 GDP 대비 외채 비중은 56%대로 전년대비 상승하였음.

- 석유자원 부족으로 주로 해외차입에 의존해 온 두바이의 외채비중이 GDP의 130%로 외채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 DSR은 최근 수년간 3~4%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209억 달러의 원리금 상환 및 수출감소로 DSR이 10%대로 크게 상승하였음.

□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 동국은 약 9,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용 중에 있으며, 아부다비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그 자산 규모만 8,7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정치 안정세 지속

- 동국은 7개 토후국이 연방정부를 구성(1971년)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를 갖추고 있음.

수도이자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지도자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지도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권력 아래 정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7개 토후국은 각기 독립된 국가로서 독자적인 관할구역 및 역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재정정책, 법률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 왕족 혈통의 장기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 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국제관계]

□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동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란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또한,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군사적, 경제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Buraimi Oasis, Liwa Oasis 및 Khoral-Udaid 내해 소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 간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또한, UAE는 2009년 5월 사우디 리야드가 향후 걸프 중앙은행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GCC 통화동맹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음.

- UAE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서 GCC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중이며, 2009년 12월 연례 정상회의에서 연합군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통화 협정을 발효(단, UAE와 오만을 제외한 4개 회원국이 맺은 통화협정 발효)시킴.

□ 이란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부상, 그러나 소유권 분쟁은 지속

- 2007년 5월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방문하였고, 이란은 최근 수년간 UN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하며 UAE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2008년 기준 이란의 UAE로부터의 수입금액은 132억 달러로 이란의 전체 수입금액의 19%를 차지하여 UAE는 이란의 제1위 수입대상국이며 UAE의 이란 앞 재수출은 UAE 전체 재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Abu Musa, Greater Tunb 및 Lesser Tunb 3개섬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으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안정]

□ 사회불안 요인 미미

-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유지, 근로자의 처우 개선, 여성의 권익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제난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 가능성은 미미함.
- 총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정부가 자국민 고용비율 확대 등 적정한 권리보호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소요/사태]

- 동국은 기타 인접 중동국가 대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소요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2등급 (2007. 10) → 2등급 (2009. 4)
- Moody's : Aa3 (2006. 10) → Aa2 (2007. 7)
- ICRG : 13/140 (2009. 1) → 25/140 (2010. 1)
- I.I : 30/177 (2009. 3) → 30/178 (2009. 9)
- Euromoney : 28/186 (2009. 3) → 24/186 (2009. 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현재까지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동국은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수년간 3~4%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온 DSR도 2009년에는 수출감소 및 원리금 상환규모 확대로 10%대로 크게 상승하였음.

□ DW 채무재조정 협상 진행중

- 지난해 11월말 DW의 6개월 채무상환유예 요청 이후 2009년 12월 중순부터 두바이월드와 90여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채무상환유예 (standstill agreement) 및 채무재조정 합의를 위해 협상중임.

현재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두바이월드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채무재조정 대상금액은 220억 달러이며, 신디케이트론 120억 달러, bilateral loan 75억 달러, 채권 25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220억 달러 중 UAE 현지은행들이 45%(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UAE 현지은행들 중에서는 두바이 은행들이 3분의 2, 아부다비 은행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두바이월드가 제안한 채무상환유예 기간동안에도 만기도래하는 채무가 있어 두바이월드 및 채권단간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관련 합의가 시급한 상황임.
- 지난해 12월 14일 만기도래한 DW의 자회사 나킬의 이슬람채권 (Sukuk)은 아부다비 정부의 100억 달러 지원으로 전액 상환되었음.
- 금년 2월 19일 만기도래했던 Borse Dubai의 25억 달러 신디케이트론은 Borse Dubai의 1년 만기연장 옵션 행사로 2011년 2월 19일까지 1년간 만기연장 되었음.
- 두바이월드는 비즈니스 플랜 및 자산평가가 완료된 후 3월 또는 4월경에 채권단 앞 채무재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UAE 국영회사 및 은행의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조정

- 두바이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무디스는 DP 월드를 비롯한 두바이 6개 국영기업의 신용등급을 모두 투기등급으로 하향조정 하였고, 에미리트 NBD 은행 등 두바이 3개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 2009년 12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후 두바이 국영기업 신용등급
 - DP월드 : Ba1, 두바이 수전력청 (DEWA) : Ba2, 제벨알리 프리존(JAFZ) : B1
 - 두바이홀딩커머셜오퍼레이션그룹 (DHCOG) : B1
 - 이마르 (Emaar Properties) : B1, DIFC인베스트먼트 (DIFC) : B2
- 또한, 금년 3월에는 무바달라를 포함한 아부다비 7개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약화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그러나, 무디스는 UAE의 국가신용등급은 강등 없이 Aa2를 유지하고 있음.

<표 3> UAE 5년만기 국채에 대한 CDS 스프레드 추이

단위: basis points

구 분	2009. 5. 29	2009. 10. 30	2009. 11. 27	2010. 2. 15	2010. 2. 25
두 바 이	510	299	647	651	599
아 부 다 비	247	97	176	157	147

자료: Bloomberg

□ 아부다비 정부는 필요시 두바이를 지원한다는 입장

- 아부다비 정부가 2009년 12월 나킬의 이슬람채권 상환자금을 지원한 것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두바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아부다비 정부는 두바이월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 지원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전별로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두바이 사태에 따른 UAE 전체 경제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두바이 정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입장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 · UAE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3,705	5,749	4,978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수 입	12,656	19,248	9,310	원유, LPG
합 계	16,361	24,997	14,288	-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80년 6월 18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투자증진보호협정 (2002), 이중과세방지협정 (2003), 경제무역
기술협력협정 (2006), 군사협력협정 (2006), 문화협력협정
(2007), 원자력협력협정 (2009)
- 2009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143억 달러로 2008년 250억 달러
대비 크게 축소됨.
 -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약 50억 달러, 수입은 원유, LPG 등을 중심으로 약 93억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 (2009년 12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 294건, 449,356천 달러
- 원자력 발전관련 협력 강화
 - UAE는 2004년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래 프랑스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한국
전력공사 컨소시엄과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금년 1월 한·UAE 원자력 협력협정이 발효되고 UAE 앞
연구용 원자로 수출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는 UAE를 원자력 중동
허브로 만들어 UAE 자본과 동반 원전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원자력 관련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V. 종합의견

- 세계 6위의 석유 자원(978억 배럴)을 보유한 자원부국 UAE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 및 비석유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를 나타내었음.
- 그러나, 2009년 세계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재정수지 흑자규모 대폭 축소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되었음.
- DW의 채무상환유예 요청 이후 220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이 진행중이며, 아부다비 정부의 두바이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정책이 금번 사태가 UAE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치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GCC 주변국 및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관계가 비교적 양호함.